어린 양의 신부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 들이라 동편에 세 문, 북편에 세 문, 남편에 세 문, 서편에 세 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척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척량하니 일만이천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척량하며 일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의 척량 곧 천사의 척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였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애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개역, 요한계시록 21:9~27]

계시록은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책인가?

계 시록을 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은 대체로 계시록입니다. 이단들이 자신의 전유물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은 신비롭고 이상하고 비밀스러운 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초대교회 시절에 고난 받던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이며 그분들이 읽으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이천년이란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이는 점이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 상황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새겨 보면 이것이 마냥 신비롭기만 하거나 어렵기만 한 책은 아닙니다.

어렵다고 덮어두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덮어놓았다가 품으로 가지고 다닐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 참으로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준 책입니다. 성도들이 겁을 내고 두려워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일곱 가지 재앙도 끝나고, 일곱 나팔의 재앙도 끝나고, 마지막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재앙도 다 끝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새예루살렘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면서 천사가 요한을 데려갔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이 길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보석 이름들이 많이 나열되어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새예루살렘의 가장 큰 특징이 뭘니까? 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아는 보석이 들어 있습니까? 녹보석인지 황보석인지...? 하도 많아서 그게 그거 같고, 무슨 보석인지 알만 한 것이 잘 없어요. 아마 보석을 좋아하는 분이나 보석에 관심 많은 사람이 여길 보면 눈이 번쩍 뜨일지 모르죠. "야, 천국엔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만한 보석이 있기는 있습니다. 남보석은 영어로 사파이어라고 하고 녹보석은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잘 모르겠어요. 담황옥은 글자의 뜻으로

보면 누런 옥종류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영어를 보니까 토파즈라고 쓰여져 있더군요. 용흥동 우방아 파트 쪽에 가면 고급스런 대형 상점 이름이 토파즈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걸 보니까 일종의 보석이네요. 나머지 보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석이 이렇게 많이 나온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속치마와 비슷한 속옷 위에 겹옷을 입고 그 위에 사각형으로 된 흉배라는 것을 담니다. 이 흉배에 세 개씩 네 줄로 각기 다른 열 두개의 보석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가리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주를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열 두가지 보석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이 아름다운 보석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완전히 보석으로 만들어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새예루살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봅시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새예루살렘 전체의 대략적인 윤곽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해 본다면 수정과 각종 보석으로 된 유리성, 꼭 아이들 만화책이나 만화영화에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아주 맑은 보석으로 되어있는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있는 유리성 같은 곳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상상이 됩니까? 전 사실 상상이 잘 안됩니다. 보석이 어떤 것인지 보석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전시회가 있으면 구경을 한 번 가야 되겠습니다. 천국 꼭 가야겠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한 쪽 귀퉁이라도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은 보석을 다 남의 손에 넘어가게 내버려둔다면 얼마나 배가 아릅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런 보석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보석이 아니란 증거는 11절에 보면 **갈더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라는 표현이 여기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나옵니다. 왜 보석 같다고 합니까? '보석 같고'란 말은 보석 같은 걸로 되어 있다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보석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우리의 느낌이나, 모양이나 전하고자 하는 대로 전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언어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되지 않았을 때 큰 맘을 먹고 컴퓨터를 한 대 샀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산 것까지는 좋은데 좀 어려운 점은 우리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실내에 켜져 있는 형광등을 보고도 "뿔하러 대낮에 쓸데없는 불 켜놨나"고 다 꺼버립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비싼 컴퓨터를 샀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옷을 한벌 사드려도 제 값을 말하면 비싸다고 입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가격을 낮추어 말하거나 둘러대지 않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컴퓨터가 얼마나 멋진 것이냐를 설명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요긴하고, 일을 잘 하고, 신통하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하도 컴퓨터, 컴퓨터 하니까 필요하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너무 비싼 물건이라서 여전히 속이 편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해 지나서 앨범에 있는 사진을 전부 스캐너로 떠서 화면에 띄웠는데 키 한번 쳐 놓고 가만히 있어도 컴퓨터가 사진을 한장씩 넘겨주면서 보여주거든요. 평소에 잘 안 보이던 사진이 커다란 화면에 나타나니까 잘 보인단 말예요. "야, 그 놈 참 대단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치고는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대단한 물건이라는 것을 일부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알 수 있게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뛰어난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언어의 한계성입니다. 언어보다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한은 새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림처럼 보여주느라고 보석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학교 행사로 며칠 전에 싱가폴을 다녀왔대요. 제가 오니까 피곤해 죽겠는데 붙들고 앉아서 **좋더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듣는 제가 그렇게 기분 좋을까요? 무슨 얘기했는지 지금은 하나도 기억에 없어요. 제 눈에는 멋지고 희한한 것이지만 그걸 전해 듣는 나는 그렇게 신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보았던 그 감탄스러움이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광경을 알고 있다면 우리 애가 어설픈데 전해도 될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같이 즐거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본 적이 없는 제 눈에는 아무 것도 그려지지 않는 거죠.

요한이 본 이 새예루살렘은 정말 휘황찬란한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을 성도들에게 전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전하려고 이용한 것이 보석입니다. 천국가서 새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 하면 나는 문짝부터 뜯어가지고 내가 차지해야지? 이런 생각은 요한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은 '보석 같고', '같고'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예루살렘의 모양은 정말 특이합니다. 장, 광, 고가 같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 광, 고가 같다는 것은 길이와 폭과 높이가 같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새예루살렘은 정육면체라는 말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만이천 스다디온이라고 했는데 약 2,200km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2,200km인 정육면체 보석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지요. 이 지상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건물 중에서 정육면체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정육면체 건물이 뭐였죠? 건물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방입니다. 외양은 아니지만 그 방은 분명 정육면체입니다. 약 높이가 4.5m, 폭도 4.5m, 길이도 4.5m인 방입니다. 지성소입니다. 대체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다는 그 지성소가 바로 이 새예루살렘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 말씀은 곧 대체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던 그 곳이 새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리라는 말이죠.

간혹 어떤 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1평을 주고, 두 사람을 전도하면 2평을 주고, 세 사람을 전도하면 3평을 주고..." 이런 얘기하는 것을 가끔 듣습니다. 그 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이 땅에 있는 집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현금 좀 할 수 있는데 왜 현금 액수는 말 안 하나? 십만원에 1평씩 준다면 내가 어떻게 평수를 넓힐 수 있을 텐데..." 이런 사고 방식은 속임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셨던 그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휘황찬란한 하늘의 새예루살렘입니다.

조명을 위해서는 햇빛이나 달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23). 설계, 시공, 감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10).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상향을 건설해 보려는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왔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높여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진정한 나라는 하늘로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진 새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그 곳에 열두 성곽, 열두 대문이 있었고, 열두 기초석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기초석에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 열두 사도가 새예루살렘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기초가 바로 열두 사도란 말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열두 사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사도란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열두 사도의 기초는 예수님이지요. 열두 사도의 기초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가르친 그 교훈 그리고 그 열두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그 교훈 바로 거기에 교회의 기초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전해준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열두 제자가 기록하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아닌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가르친 것을 가장 알맞게 요약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서 이름을 사도신경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에 기초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성경에 기초한 교회여야 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거는 성경말씀이어야 합니다. 혹시 집에서 부부싸움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지요. 싸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싸워야지요. 싸우기 전에 한번쯤은 생각하십시오. 성경말씀에 의하면 싸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거든 성경을 펴십시오.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나올 때까지 읽으세요. 한참을 읽다가 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싸우세요. 아무리 읽어도 싸워야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오면 관두세요. 농담같이 들립니까? 싸울 일이 있으면 성경말씀 따라 생각해 보시고 싸워야겠다고 결론이 나오면 싸우세요. 그럴 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평소에 많이 읽어놓아야 결론이 빨리 나지요. 만약에 싸우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싸우세요. 열심히 싸우다가 말씀에 근거해서

중지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중지해야지요.

싸움에 관한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특히 부부간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에베소서 4:26)’ 싸우긴 싸워도 해지기 전까지만 싸우면 되잖아요. 한번 싸우면 며칠씩 가는 분들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싸워야 될지 말아야 할지, 언제 싸워야 할지 그쳐야 할지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믿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가서 묻기 전에 평소에 읽어서 알고 있으면 ‘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하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묻고 다니시렵니까? 그나마 묻는 것은 낫습니다. 묻지 않고 멋대로 처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배운 삼강오륜이나 유교원리에 따라 행동하고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그런 식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우리 개인적인 삶도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었을까?

사도 요한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휘황찬란한 새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 주셨을까요? 요한은 현재 밧모섬에 귀양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그가 나이 많이 들어서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밧모 섬에 귀양가 있습니다. 밧모섬은 돌과 갈매기만 있는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그 모든 성도들을 떠나서 혼자 나가 있는 게 어떤 아픔인지 아십니까?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넓은 바다, 갈매기, 바위밖에 보이지 않는 황량한 그 곳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이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는다는 죄 하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차하면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려한 문명 세계에서 밀려나 어두운 토굴에서,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하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너희를 기다리는 새예루살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거기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라는 격려의 말씀이지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천사가 요한을 데려갈 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보여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신부가 곧 새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이 새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는 새예루살렘입니다. 어떤 예루살렘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완전한 보석 같은, 보석도 보통 보석이 아닙니다. 사방 2,200km면 우리나라 남북보다 크나요? 우리나라를 최대한 길게 표시한 것이 삼천리 아닙니까? 삼천리면 1,200km밖에 안되는군요. 그런데 2,200km! 이렇게 거대하고, 보석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석처럼 아름다운 곳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가 사회의 빛이 되지 못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때로는 사회의 빛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의 장래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부족으로 사회의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나간 오랜 세월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새예루살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상을 뛰어 넘는 놀라운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효자제일교회요? 외지에서 찾아오면 찾기도 힘들습니다. 왜 이렇게 구석에 쏘옥 들어와 지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당도 조그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 교회가 온통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여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보석이 종탑이고, 대문이고, 현관입니까? 아니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보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전히 보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교회에 소속돼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전 옛날부터 제 자신을 보면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축구를 하면 풀백을 서고, 구인제 배구를 하면 제일 뒤쪽에 서고, 학교 다니면서 감투라고 겨우 한 자리한 것이 부반장입니다. 제 경력에는 '부' 자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이었다면 1등도 하고 '부' 자 없는 '장' 노릇도 했을텐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난 왜 이렇게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진 적이 참 적었어요. 그래서 5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 겨우 전도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늦게 전도사 해도 괜찮죠? 지금은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감을 많이 회복한 상태지만 옛날 버릇이 불현듯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난 왜 이리 못한 놈이냐?'라고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은 인정하십시오. 성질을 봐도 그렇고,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이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이 조금 이상해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셔서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못 생기고 못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희생시킨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불러들인 자식들입니다. 독생자의 목숨과 바꾼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값을 많이 지불한 자식일수록 더 귀한 자식이지요. "내가 이 놈아 너 낳을 때 어떻게 낳았는데..." 낳을 때 고생 많이 하고, 키울 때 고생 많이 한 자식일수록 더 귀한 자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아무리 어설피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놀라운 보석 같은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느 정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자랄 때 입시제도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저는 입시제도에서 막차를 많이 탔습니다. 제가 시험을 치고 난 바로 다음 해부터 평준화가 되기도 하고, 대입자격 고사가 바뀌기도 하고 대학이 전공별 선발에서 계열별 선발로 바뀌기도 하고... 이상하다? 나만 지나가면 입시제도가 자꾸 바뀐다? 왜 그때 3년마다 입시제도가 차곡차곡 바뀌어졌는지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그 때 떠들었던 소문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박지만이 때문에 입시제도가 바뀌었다고 소문이 났어요. 박지만이란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적을 겁니다. 박지만이 입학하기 전에 입시제도를 바꾸는데 저는 바뀌기 전에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대통령의 아들이 시험을 쳐서 떨어지면 창피 아니냐 그러니까 시험 치지 말고 뽕뽕이 돌리도록 바뀌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할 형편도 아니지만 여하튼 우리 자랄 때 그런 말이 많이 돌았어요. 왜 삼년마다 입시제도가 자꾸 바뀌느냐? 대통령의 아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리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시키지는 않아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레짐작해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아들이면 그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대통령의 아들 하나를 위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나로 말미암아 있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오지 않을 비가 올 수도 있고, 나 하나 징계하기 위해서 오지 않을 태풍이 불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결혼한지 5년 만에 큰 맘을 먹고 조그마한 금목걸이를 아내에게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5년 때 금목걸이를 했으니 10년째에는 등급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짜기 물어 봤는데 반지에 진주 하나 박힌 게 꽤 비싸더라고요. 대충 값을 알아봤는데 조금 무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시치미 뚝 떼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진주 반지를 하나 선물할까 하는데...” 했더니 가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간이 부었습니다. 평소에 통이 좀 큰 사람이면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저와 같으면 경제가 안 돌아갈 겁니다. 치장하는 일에는 결코 돈을 쓰지 않거든요.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 조그마한 것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달 동안 모으고 모아서 큰 맘 먹고 갔는데 그냥 그거 하나만 팔면 되지 무슨 세트라고 하네요. 손가락에 하나 붙이면 댕지 목에 하나 걸고 귀에까지 다네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야, 이거 괜히 말 꺼냈다는 생각이 들더니 오만가지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대구에 동아쇼핑이 처음 생겼을 때 어찌다가 구경이나 한번 가자 해서 명색이 신랑이 옷이라도 한 벌 사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옷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눈질로 가격부터 봤지요. 저 정도면 한 벌 사도 되겠다 싶어서 “구경 좀 해” 그랬더니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자꾸 구경하라고 했는데 한참 있다 자세히 보니까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정말이에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그 동그라미가 없다면 조금 비싸다 싶어도 한번 해보겠다 싶던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어 있다는 것이 눈에 탁 보이는 순간에... 그 이후 그 백화점에는 다시 안 갔습니다. 갈 생각도 안 합니다. 어느 백화점인지 아시지요? 옛날 대구백화점 말고 큰 길 건너 편에, 아마 동아쇼핑이 맞지 싶어요. 그 이후에는 근처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여긴 내가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 거죠.

저도 좀 짭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산 모자를 5년간 쓰니까 윗부분이 바래서 머리카락이 쑥쑥 나옵니다. 원래는 질은 감색이었는데 색깔이 바래서 회색이 된 것을 안쪽에 천을 대서 누벼 버렸죠. 교련 선생님이 모자 바꾸라는데도 그냥 쓰고 다니니까 찢으려고 잡아 당겼는데 안 떨어졌어요. 결국 졸업할 때까지 회색 모자를 썼죠. 그걸 왜 바꾸요? 색깔이 조금 바랬을 뿐인데. 저도 아끼고 고쳐 쓰는 데는 도가 튼 사람인데, 진주 하나만 해도 비싸다는 걸 간신히 참고 갔는데 ‘진주는 세트로 하는 거라는 그 주인이 얼마나 밋던지요. 결국 세트는 물 건너가고 조그마한 반지 하나 정말 큰 맘 먹고 사왔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 20주년이 다가오는데 또 고민이 시작될 판입니다. 제가 느끼는 진주에 대한 기억이 그래요. 그런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뭐가 눈에 띄는지 아세요?

본문에 진주 얘기가 있어요? 21절 보세요. 12문은 12진주입니다. ‘문마다 한 진주요’ 문 하나가 진주 하나입니다. 그럼 진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문이 어떻게 열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무덤 문은 굴러서 연다더니 이 진주로 된 대문도 굴릴 수밖에 없잖아요. 대문 자체가 진주 한 알이란 말이에요. 거대한 진주 하나가 문이예요. 그걸 열려면 굴려야겠구나. 굴리면 금가거나 깨지면 어떡하지요? 바닥은 필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금 바닥에 진주 한 알이 대문입니다. 진주요? 콩알만한 진주 하나 때문에 발발 떨던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다른 모습은 별로 실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에메랄드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 다 모르겠는데 진주는 당해 보았거든요. 성경이 보석이야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귀한 진주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한 알, 목에 진주 한 알 건 사람이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어요? 이거 하나 달고 길에 나서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지 않을까요? 진주목걸이는 진주를 줄줄 꿰어 만드나요? 그건 정말 대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진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진주를 주렁주렁 달고 다녀도 기죽지 마세요. “우리 집 대문이 대형 진주다 임마!” 이런 마음으로 사세요.

제가 진주 대문에 이렇게 감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받는 느낌이 이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진주에 흠집을 내면 어떻게 하죠? 죄가 크지요. 나만 진주입니까? 나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주입니까? 옆에 있는 성질 더러운 모 집사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진주입니다. 왜 진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아들을 주고 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진주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진주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네 형제를 실족케 하지 말라' 어떤 형제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실족케 하지 말라. 어떤 형제인데요?

롬 14: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형제입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평생 그를 위하여 살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면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형제를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형제를 내가 어떻게 해요? 실족케 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바로 집에 가지거들랑 부부가 서로 쳐다보면서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어떤 아내요, 어떤 남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성질난다고 고향을 질러요? 조금 게으르다고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지난 여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한 발자국만 나가 보면 교회마다 가슴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해결책은 단 한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대문 크기만한 진주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진주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그 진주에 흠집을 낼 수 있어요? 못 합니다. 이게 어떤 보석인데요? 우리 집 앞에 가끔 배달되는 어느 교회 주보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방향은 좋은 스승을 만나면 끝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도 끝나고, 좋은 남편을 만나도 끝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방황할 필요가 없는 좋은 교회입니다. 방황할 이유가 없도록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성도간에 얼굴을 찌푸린다거나 성도간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새예루살렘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된 맑은 유리성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특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사는 이웃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싶은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효자제일교회가 지금도 아름답습니다마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